

---

**ISSUE 09**

---

**Now Artist  
City Now  
Style & Art  
Artists & People  
Collector  
2015 Exhibition  
Masterpiece**

**artnow**

---

by  
**Noblesse**

미술 외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미술 자체의 이야기, 즉 '미술사'를 작품 제작의 동력으로 삼는 작가도 많다. 한마디로 미술에 관한 미술이다. 김홍석은 제프 쿤스, 로버트 인디애나, 소피 칼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유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가짜 추상회화를 제작하면서 걸만 번드르르한 동시대 미술의 엉성한 시스템을 공격한다. 그에게 미술은 읽고 쓰고 분석하는 텍스트와 같다. 박미나는 오직 회화의 역사에 골몰하며 그 빈틈을 후벼 판다. 색, 형태, 이미지, 재현, 물감, 캔버스 등 회화라는 가계도를 이루는 식구들을 소환해 철저히 분석한다. 그림문자인 덩벙과 추상미술을 결합한 '덩벙 회화'는 유사 과학/화학자와 같은 연구를 거쳐 탄생했다. 박미나와 마찬가지로 홍승혜의 다양한 장르에 걸친 작품도 결국 20세기에 탄생한 추상미술을 향한다. 픽셀로 구축한 '유기적 기하학' 연작은 그녀가 추상미술의 위대한 선구자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도전장이다. 조각의 영역에서 이야기와 이야기 생산자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진다. 무언가를 빚어 만들었다는 태초의 신화와 조각은 동일한 서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가. 또한 대단히 남성적인 메타포를 함축한다. 이형구의 뼈 조각이나 김인배의 인체 조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희고 검은 괴물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현대판 프랑켄슈타인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 스스로 사랑에 빠지는 피그말리온인가?



5

5  
박미나, 5'PIU;UVYQ,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158×158cm, 2010